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4월

선교편지 제 130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믿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작년 8월부터 '덩기모기'가 창궐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고,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사상자가 생기는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가, 옆친데 덮친 격으로 금년 초에는 치사율이 100%가 된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지나감으로 많은 주민들이 긴장과 한숨 속에 있었는데, 마침내 'COVID-19'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가 위치하고,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루손 섬 전체가 자체 방어와 방역을 위해서 국내외 및 지역 내 이동을 금지하는 강력한 봉쇄 (Lockdown)를 시작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지역도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모든 국내외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화물 운송을 제외한 일반인의 육상이나 해상 이동도 막혔습니다.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통행금지와 더불어 모든 주류 판매도 금지되고, 식품이나 약품과 관련된 업종만이 영업을 할 뿐 거의 모든 소매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물론이고, 장례식 마저도 직계 가족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상관없이 각 집마다 1장의 FM 패스 (Food & Medicine Pass)를 발급하여, 그 패스를 소지한 자만이 집 밖에 나와 식품과 약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고, 시간마다 보건소 차량이 동네를 돌면서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방송을 쉬지 않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뉴스에서나 들을 수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통한 검사는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 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는 물론 의료용 마스크도 구입할 수 없어서 임시로 만든 수제 마스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확진자'와 같은 통계는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어두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강도와 절도를 한다고 하고, 또한 이웃 마을에 매일 밤 도적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필품은 이미 소량으로 제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곳의 주식인 쌀은 벌써부터 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봉쇄를 시작한지 열흘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부터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타깝게도 디고스예일교회, 익핏교회, 바카카교회의 모든 예배와 성경공부가 기약없이 중지되었습니다. 외국의 많은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은 이곳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형편이고, 심지어 교회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이 모든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공을 눈 앞에 두고 마지막 공정에 열심을 냈던 아팔라야 교회 건축도 모든 자재와 공구를 그대로 놓아 두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역과 건축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 했는데, 기대했던 편안한 휴식의 모양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집에 머물면서 지나온 선교 사역들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내가 서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그동안 사역을 감당한다고 동분서주했지만 기도와 말씀에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 봉쇄 기간은 바이러스가 아닌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제 아내와 함께 이 사태가 멈추는 그 날까지 하루 한끼씩 금식하며,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뉴욕예일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매일 매순간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긍휼히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이 이 어려운 사태를 지나신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친지들에게 강하게 역사 하시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저희들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열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열병이 그치니라 (민 16:47,48)**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